

“농기계, 점검·정비로 깨우세요”

농진청, 영농철 농기계 사용하기 전 볼트·너트 등 점검·정비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에서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전 점검·정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농철에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의 공통 점검·정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에 쌓인 먼지, 흙은 털어내고 녹이 쓴 부분은 기름칠한다. 부위별로 볼트나 너트가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윤활유는 정기 점검 목록에 따라 필요한 곳에 넣어준다.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은 양과 상태를 점검해 보충하거나 교환한다. 냉



각수는 새는 곳이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냉각수 색이 변했거나 부유물이 많으면 바꾼다.

습식 에어클리너는 경우나 석유로 닦아주고, 건식 에어클리너는 필터 오

염 상태를 확인해 청소하거나 교환한다. 배터리는 윗면 점검창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청소해 그리스를 발라준다.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은 이상이 있으면 교환한다.

농기계에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3~4분간 예열한다. 농번기에 사용할 간단한 소모품이나 연료, 엔진오일 등은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자세한 기종별 점검·정비 요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u.go.kr)에 접속해 ‘농업자재→

농업기계→계절별/유형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해 점검받는 방법도 있다.

전남 장성의 배민혁 농업인은 “농사를 시작하는 바쁜 시기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작업하지 못하고 애매운 적이 있다”라며 “성공적인 한 해 농사는 농기계 사전 점검·정비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발농업기계과 이상봉 과장은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사전 정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철저한 농기계 점검·정비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최근 농협전북본부에서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회장 최승운 금남농협조합장) 회원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협의회 임원진 선출 등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근 쌀 가격 및 수급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추진 방향, 벼 생산조정제 등 성공적인 쌀 산업 발전을 결의했다.

최승운 협의회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로 농업·농촌과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쌀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장에 전봉구 옥구농협 조합장, 부회장은 정철석 오수관농협 조합장, 감사는 장승환 백구농협 조합장이 선출, 전국협의회 임원 후보자로 현 전북협의회장인 최승운 금남농협 조합장이 추천됐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전봉구 조합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만호기자

2024년 기금 운용수익률 15%... 2년 연속 최고 성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213조원 · 수익금 160조원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기금 운용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 운용본부는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213조원, 수익금 160조원, 수익률 15.00%(잠정·금액가중수익률)를 기록했다고 2.28일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으며,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로 각각 나타났다.

해외주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30%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주식은 대형 기술주 실적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외채권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양호한 이자수익과 원·달러 환율상승 효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고, 국내채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차례(10월·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해 5%대 수익률을 나타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자선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신흥이력이 반영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나해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 대선

및 국내 정치 불안정 등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 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차세대 해외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 기금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쯤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호주 시장 공략 위한 초청 자문회의 개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의 호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달 28일 ‘호주 농산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한국 농수산식품의 호주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계획되었다.

회의에는 월드옥타 수석부위원장인 이동완 통상자문관을 초청하여 진행



했으며, 참석자들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호주 시장 내 인지도 제고 방안과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호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제품 패키지 및 홍보 전략 수립,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호주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체험 행사 개최 등이 검토되었으며,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현지 유통망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호주 시장에서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STAY ON’ 이벤트

자동차체 · 급여 · 연금 등 입금 시 최대 2만원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체 STAY ON’ 및 ‘급여·연금·가맹점 STAY ON’ 이벤트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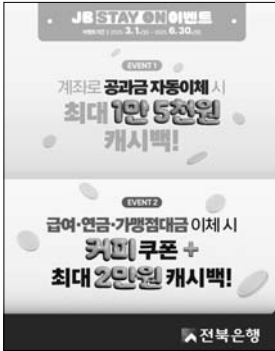
‘자동차체 STAY ON’ 이벤트는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보험·통신요금 등 4가지 생활 공과금을 자동차체로 납부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한 가지 항목을 자동차체하면 2,000원 두 가지 이상이면 추가 3,000원을 더해 총 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 혜택은 매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또한, 2개월 이상 자동차체를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의 ‘더블업 캐시백’도 지급한다. 단, 이벤트 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전북은행 계좌나 JB신용·체크카드로 자동차체 실적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급여·연금·가맹점대금 STAY ON’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2개월 이상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연금·가맹점대금이 입금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매월 5,000원(최대 4개월간 2만 원까지) 지



급된다. 즉, 이벤트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고객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벤트는 최근 6개월 이내 급여·연금·가맹점대금 입금 실적이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자동 응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정상 계좌 유지 및 마케팅 동의의 고객에 한해 추첨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1588-4477), 모바일 앱(속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일상 속 금융 거래만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전북 2036년 하계올림픽 선정 환영”

전북상협, “온 국민이 2036년하계올림픽 성공 위해 노력하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28일 내놓았다.

먼저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한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것이고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슬로건 아래,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이라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이어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 개선,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전북상협은 “그동안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상공인 모두는 온 국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유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을 주장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